

21. 20C 전반기의 동아시아 ①

중국의 공화혁명과 5·4운동

현대 동아시아의 형성(2020s)
독습용 보조교재 & 과제

0. 시대연표

	한국	한국	일본
1900	청 (淸)	대한제국	메이지 (明治) 시대
1910			다이쇼 (大正) 시대
1920	민국 (民國) 시대	일제 강점기	쇼와 (昭和) 시대
1930			
1940			

*일본 안은 발생일(月)

1900: 의화단 사건, 1901: 관서신정(1), 1902: 영일통상(1)

1904: 러일전쟁 발발(2)

1905: 가쓰라-타프트 밀약(7), 중국통상의 성립과 삼민주의 제창(8), 포츠머스 조약(9), 하비야폭탄(9), 을사조약(11), 청조의 입헌 제 조사단 파견(12), 1906: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(11)

1908: 청조의 「중정헌법대강」 발표(8), 선통제 즉위와 서태후 사망(11)

1910: 대역사건(5월), 한일합병(8), 1911: 무창불기→신해혁명 시작(10), 중화민국 임정 수립과 쑨원의 임시중통 취임(12), 1912: 선통제 퇴위와 청조멸망(2), 원세개 제2차 임시중통 취임(3), 국민당 창당(8), 다이쇼정변과 제1차 호헌운동(12)

1913: 제2혁명 실패와 쑨원의 일본 망명(7-8), 1914: 제1차 세계대전 발발(7)

1915: 일본의 대종21개조 요구(1), 「신정년」 창간(9)과 신문화운동, 원세개의 제제운동, 1916: 원세개 병사와 군벌시대 개막(6)

1918: 팔소동(7), 시베리아 출병(8), 제1차 세계대전 종결(11), 1919: 파리 강화회의의 시작(1), 3·1운동(3), 5.4운동(5), 중화혁명당→중국국민당(10)

1920: 안·진전쟁(7), 1921: 중국공산당 결성(7), 워싱턴회의(11), 1922: 제1차 직·봉전쟁(4), 일본 공산당 결성(7)

1923: 쑨문-요페선언(1), 관동대지진(9), 1924: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(1), 제2차 호헌운동(1), 황포군관학교 설립(6), 제2차 직·봉전쟁(9)

1925: 쑨문 사망(3), 5·30사건(5), 보통선거법&치안유지법 제정(5), 왕정위-장개석 연합체제와 국민혁명군 편성(8), 1926: 중산항 사건과 왕-장 연합체제 붕괴(3), 북벌 시작(7), 1927: 4·12반공정변(4) 국공합작 결렬(7), 남창폭동(8)

1928: 장장립 독살(6), 북벌 완료와 군벌시대 종식(12), 1929: 세계 대공황 발생(10)

1930: 현면해군군주회의(1), 중원대전(5-10), 국민당의 공산당포위공격(12 - 1934), 1931: 장개석의 추적취임(5), 만주사변(9), 공산당 임시중정부 수립(11), 1932: 상해사변(1), 열강단 사건(2), 만주국 건국(3), 5·15사건(5)

1933: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(2), 당고 정전협정(5), 1934: 「장정」과 보좌들의 공산당 장악(10 - 1935)

1935: 국제당징운동(8), 12·9항일운동(12), 1936: 2·26사건(2), 서안사건(12), 1937: 중일전쟁 발발(7), 제2차 국공합작(9), 국민정부의 중경 천도(11), 일본군의 남경점령과 대학살(12)

1938: 일본의 중국 국민정부 무시선언(1), 일본의 국가종족원법 공포(4), 돌아선집서 성명(11)

1940: 왕정위 남경괴뢰정부 수립(3), 삼국통일(9), 1941: 환남사변(1), 미국내 일본자산몰수와 석유수출금지(7), 대동아공영권 구상(7), 트로츠키 내각성립(10), 태평양전쟁 발발(12), 1942: 국민정부의 국가종족원법 공포(3), 미드웨이 해전(6)

1943: 과달카날 철수(12), 1944: 마리아나 해전(6), 미군의 사이판&오키나와 점령(7)

1945: 연합군의 오키나와 점령(7), 원폭투하(8), 소련참전(8), 일본패망(8)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

• 혁명운동의 대두

- : 의화단 사건을 둘러싼 청조의 미숙한 대응→존재이유에 대한 의문
- : 지식인과 학생들의 「혁명」주장
- 청조가 대외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X→망국의 위기→해결책은 청조 타도
- : 손문(孫文=孫中山)의 반청 봉기 준비

• 혁명운동의 전개와 「동맹회」(同盟會)

- : 손문의 반청 봉기의 실패와 새로운 혁명주체(학생)에 대한 주목
- 일본 입국(1905/07)과 중국동맹회 결성
- : 「삼민주의」(민족 · 민권 · 민생)와 3단계 혁명방안의 제시
- cf. 3단계 혁명방안...①군법에 의한 혁명군 통치기 ②약법(約法: 임시헌법)에 의한 지방자치 ③헌법에 의한 대총통 · 국회의원 선출과 입헌정치
- : 동맹회에 의한 무장봉기 실패와 손문일행의 일본주방
- : 동맹회의 기존전략...선전활동/대중조직X. 무장세력을 들여와 변방에서 봉기
- 수정이 불가피
- 청조의 신군(新軍)을 포섭, 혁명주체化, 근거지의 광둥(廣東) 이전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

- 혁명운동의 전개와 「동맹회」 (계속)

- : but 전략수정 이후의 봉기도 모두 실패

- ex. 광주 신군봉기(1910), 광주 항하강 봉기(1911)

- : 무창(武昌)봉기 당시의 혁명파의 상황과 중국내 혁명기운의 고조

- 혁명기운의 고조

- : 청조의 자각과 「광서신정」(1901)

- 「신군」창설, 서구식 교육, 공장확충, 과거제 폐지 등과 정치개혁

- : 청조의 정치개혁에 대한 지방 신사층의 기대...입헌제도 포함?

- 청조의 입헌제도 논의 배제(=군주권 제한)

- 개혁의 방향성도 중앙집권>지방분권

- 정치개혁을 둘러싼 청조와 신사층 사이의 갈등 (1900년대 후반)

- : 청조의 (메이지헌법을 모방한) 헌법제정 선언...군주권 강화 의도

- 신사들의 불만 고조

- 이유① 일본의 「원로」나 행정부 고위직처럼 군주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할 세력 부재 ②의회가 앞으로 정말 설립될지 여부도 불투명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

• 혁명기운의 고조 (계속)

: 신사들의 청원운동 시작(신속한 의회개설, 의원내각제 실시 요구)

→청조는 무력해산으로 대응...양자의 관계 악화

: 「이권회수운동」을 둘러싼 청조와 신사층의 갈등

→신사층의 입장(찬성)과 청조의 입장(반대)

: 광서제 · 서태후의 사망과 어린 선통제(宣統帝)의 즉위(1909)

: 청조의 「철도국유화」 명령의 파장

→철도사업의 성격과 청조 · 열강의 이해관계

→신사들과 민중의 반대 이유(사업방해, 매국행위)

→유혈사태

: but 중국의 혁명분위기가 고조된 것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

→①청일전쟁의 전비 · 배상금으로 인한 재정난

→②여기에 의화단사건의 배상금이 추가

→③이상의 재정부담이 민중들에게 세금증가의 형태로 전가됨

→④광서신정의 추진비용도 새로운 세금으로 충당됨

→청조의 개혁이란 결국 민중의 경제적 고통→폭동 빈발과 정세불안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

• 공화혁명의 시작과 전개

: 무창(武昌)봉기와 그 성공(1911년10월10일)

→정치혁명 선포, 외세개입 저지. 입헌파 인사들이 장악

: 각지의 개별적 독립선포→통일된 중앙정부의 필요성

→「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」 의결...남경 임시정부 설치, 종통 선출

→초대 임시대총통 손문 (제한적 권한)

→원세개의 화의 제안과 혁명파의 원세개 추대 움직임

: 원세개가 협상의 전권대표로 임명된 이유

: 「남북의화」(南北議和)

→원세개 휘하 군 지휘관들의 공화정 지지, 손문의 양보

→민국정부로의 정권 이양

→선통제의 퇴위(=청조멸망)와 원세개의 제2대 임시총통 취임

• 중화민국 초기의 정국

: 중앙에 대해 지방의 권한이 강했던 초기의 민국정부

→총통 원세개의 권력강화 시도와 혁명세력들의 반발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

• 중화민국 초기의 정국 (계속)

→원세개의 입헌내각제 · 정당정치 약화시도와 손문 등의 「제2혁명」

→부정적 여론과 제2혁명의 실패

: 원세개의 총통 독재권 확립

→「국민당」(동맹회 후신)해체, 의원자격 취소, 정부조직의 중앙집중화, 의회의 유명무실화(총통의 자문기관化), 약법의 수정(=신약법)

: 다양한 反원세개 세력들은 약화되지 않고 반발을 지속

→망명한 혁명파들, 의회 다수세력이던 입헌파 인사들, 도독(都督)에 임명된 원세개 휘하의 군 지휘관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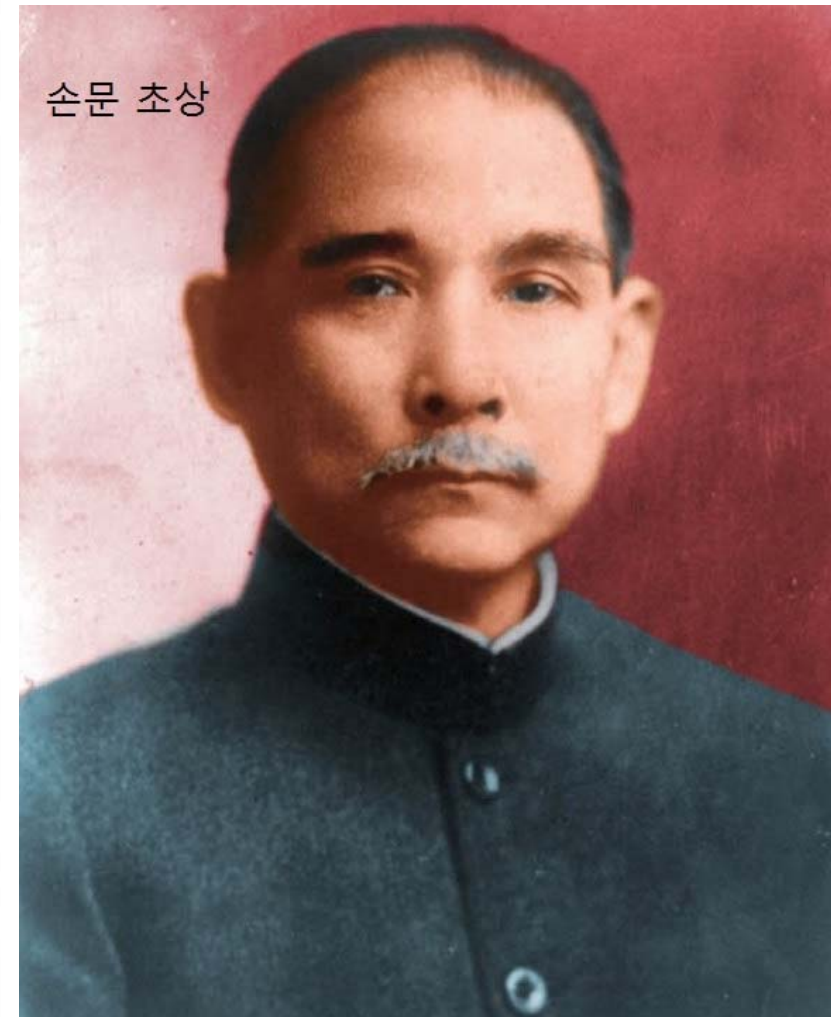
: 제제(帝制)운동(1915)과 반원세력들의 결집

→원세개의 병사(1916)과 「군벌(軍閥)시대」의 개막

• 민국 초기의 정치적 전개

→복고적 형태의 중앙집권 시도가 분권지향적 지방세력에게 패배

1. 공화혁명(共和革命): 참고도판



· 「신문화운동」(新文化運動)

: 민국 초기 지식인들의 실망...보다 근본적 변화를 갈구

→정치 · 군사적 개혁 이외에도 사회 · 개인의 의식 차원의 변화 (=계몽)

: 잡지 『신청년』(新靑年) 창간(1915)과 신문화운동의 시작

→계몽에 의한 신중국 건설. 진독수(陳獨秀) 등

→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던 북경대학과 더불어 신문화운동의 구심점化

: 「신사상운동」과 「신문학운동」

→전자는 유교비판과 서구 자유주의 · 개인주의 사상 소개가 주된 내용

→이후 아나키즘, 마르크스주의가 유입되면서 운동은 분열되어 쇠퇴

→후자는 구어체(백화) 사용과 국민문학 · 사회문학 지향이 주된 내용

→중국 내셔널리즘(nationalism) 형성에 큰 기여

: 1918년 후반부터 문화혁명 단계(사상/문학에 의한 변혁 중시)에서, 직접적 정치행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

→5 · 4운동은 이런 전환의 연장선상에 위치

2. 5·4운동

· 「5·4운동」

: 일본의 「21개조 요구」(1915)···①일본의 산동성 독일이권(조차지 등) 계승을 인정할 것 ②남만주/내몽고에서의 일본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할 것 ③북경 정부가 일본인 정치/군사/재정 고문을 초빙할 것 ④치안을 공동관리 하고 주요기업에 일본인(기업)을 참여시킬 것 등

: 원세개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(내부 정적제거가 우선)

: 원세개 사후의 단기서(段祺瑞) 정권도 친일적 협정을 체결

→일본에 대한 중국사회의 불만 고조

: 「파리 강화회의」(1919/01~)에서의 중국 대표단의 호소와 열강의 무시

→중국사회의 반일감정·애국감정 폭발→5·4운동의 시작

: 다양한 운동 참여층

→기존의 지식인·학생 이외에 자산가&노동자층도 가세

→중국 최초의 국민운동이자 중국 현대사의 기점으로 평가되는 이유

→신해혁명으로 시작된 중국 공화혁명의 내실을 다졌다는 의미에서, 신해혁명을 제1차 공화혁명, 5·4운동을 제2차 공화혁명으로 칭하기도 함

2. 5 · 4운동

· 「5 · 4운동」 (계속)

- : 중국 자산가층이 참여한 이유, 노동자층이 참여한 이유
- : 운동 참가자들이 정부에게 파리 강화조약 비준 거부를 요구
 - 정부 불응(친일파 비호, 반일운동 탄압, 북경대학 교장 해임 시도)
 - 대규모 민중운동 전개(강연, 일본제품불매 · 국산품애용, 친일파 규탄 등)
 - 정부의 굴복과 중국 대표단의 비준 거부(6월)
- : 중국민중이 「주권자로서의 권리」를 요구하고 이를 실현시킨 최초의 경험
 - 민익에 의한 국가 중대사 결정
 -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의식과 정치활동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
- : 국민적 일체감(nationalism)의 형성
 - 이에 기초한 독립된 근대국가(nation-state)를 세우자는 목표가 공유
 - 민중들은 스스로를 그 목표의 추진주체인 「국민」으로 인식

· 5 · 4운동의 유산

- : 민중의 의식 변화→「조직화」의 필요성 대두
- : 사회주의 ·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「중국공산당」 결성(1921)

2. 5·4운동

· 5·4운동의 유산 (계속)

- 중심인물(진독수, 이대조李大釗, 모택동毛澤東 등)은 5·4운동기에 활약
: 손문과 옛 혁명파들의 변화
- 사회주의·마르크스주의, 소련에 대한 관심도 ↑
- 민중의 결집된 힘에 주목, 대중적 국민운동으로 정치노선 변경
- 자신들의 비밀조직 중화혁명당을 공개적 조직 「중국국민당」으로 변경(1919)
- 제1차 국·공 합작(1924)
: 노동자들의 조직화·의식화와 세력확대